

| 블루이코노미(Blue Economy) |

전 세계적으로 식량과 자원의 보고인 해양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블루이코노미란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고 해양의 자원 잠재력을 환경 친화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 경제·사회 체제를 의미한다. 이번 호에서는 기관·국가별로 해양경제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지속가능한 해양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은 무엇이 있는지 짚어보도록 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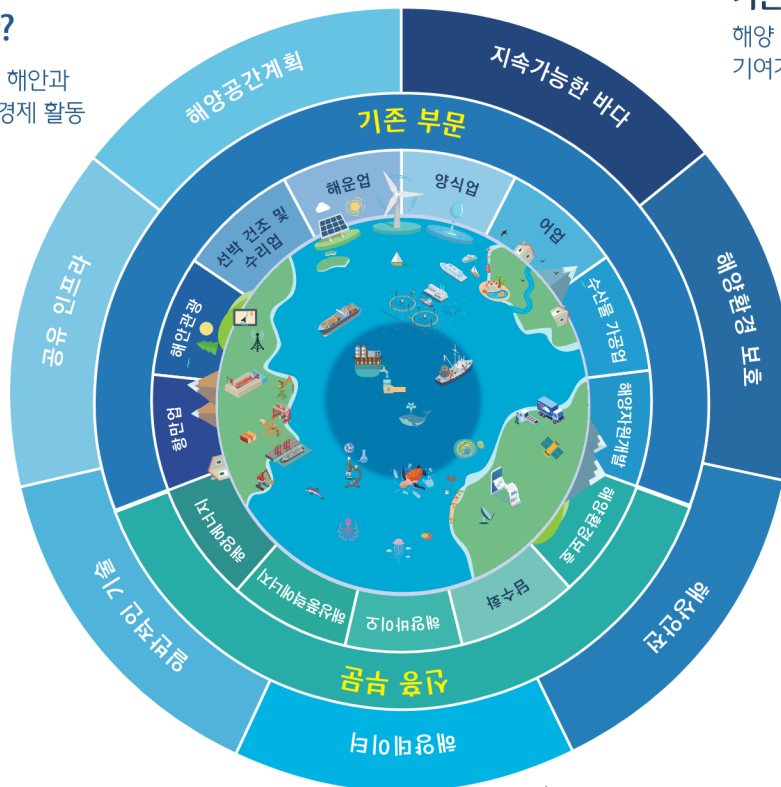
Blue Economy란?

- 해양과 연관된 용어로서 Blue Economy는 2000년대 들어 미국, 캐나다, 중국 등에서 사용되었으며, 이후 OECD, UNEP, EU 등 국제기구에서도 널리 사용됨
- 블루이코노미는 자연 생태계 순환 시스템을 모방한 경제 시스템을 뜻하며, 해양의 무한한 잠재력을 이용한 '해양 기반의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을 의미
- 기관·국가별 블루이코노미를 정의하는 기준이 조금씩 상이하나, 해양경제에 대한 지속적인 기여가 있는 해양관광, 수산업(양식업, 어로 어업), 해운·항만업, 해양환경 보호, 해양자원 등은 공통적으로 포함

Blue Economy

블루이코노미란 무엇인가?

해양, 바다 및 해안과 관련된 모든 경제 활동



기존 부문

해양 경제에 대한 지속적인 기여가 있는 부문

신흥 부문

미래 발전 가능성이 높은 새로운 부문

해양경제의 원동력

바다의 역할

생명의 근원

- 지구 표면적의 71% 차지
- 지구 생물의 80% 서식

국제교역의 대동맥

- 세계 교역량의 78%
- 우리나라 수출입 화물의 99% 담당

자원의 보고

- 해양의 95%는 미개척
- 석유·가스, 심해저 자원, 조류·파력 등 에너지

지구 환경의 조정자

- 세계 산소 절반 이상 생산
- 이산화탄소 20~30% 흡수

자료: EU, Blue Economy Report 2021, KPMG 자료를 참고하여 KMI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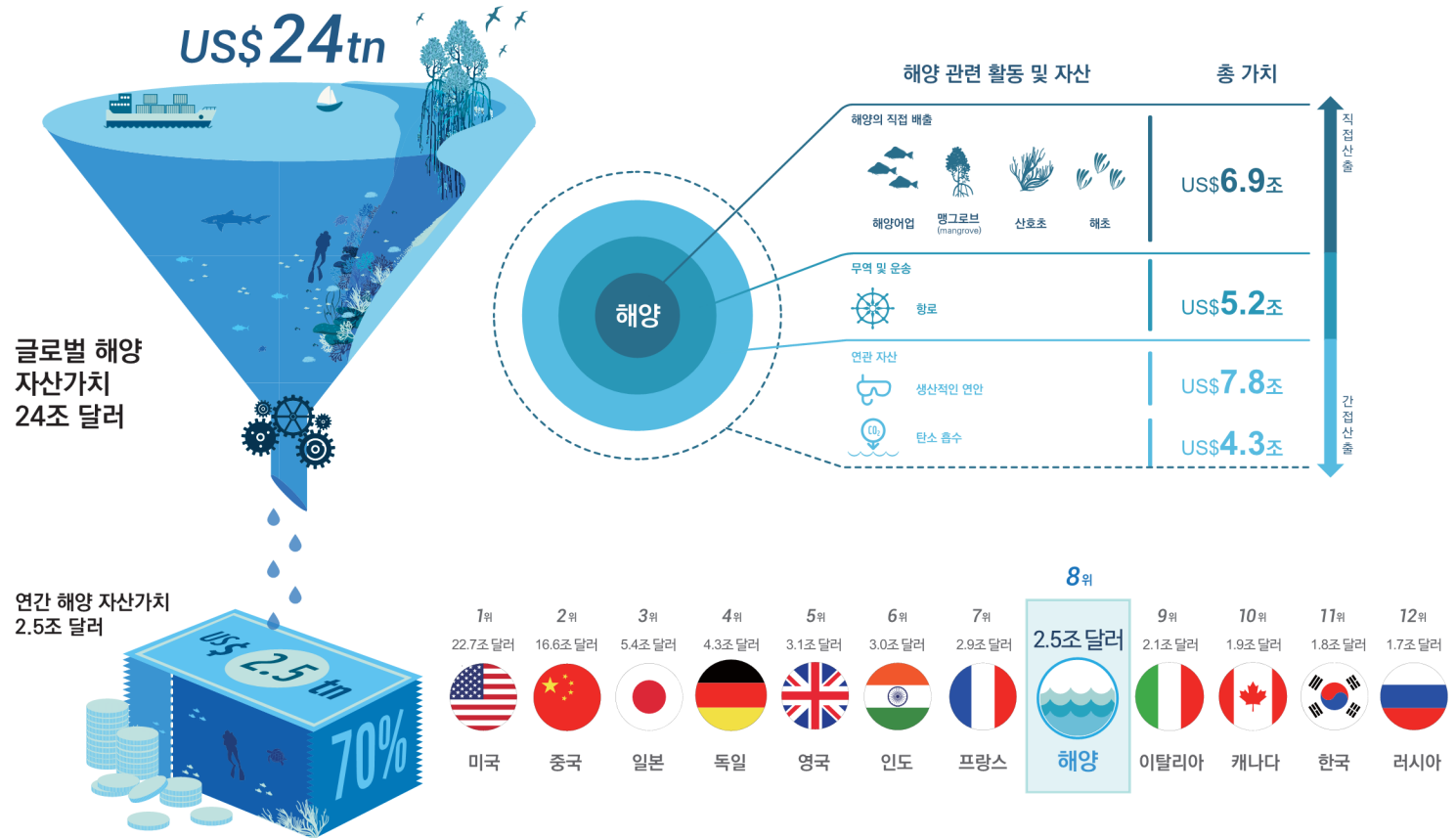
글로벌 해양경제 가치평가

• WWF의 해양자산 가치 규모 추정

- 세계자연기금(WWF)의 'Reviving ocean economy'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해양의 총 생산가치는 24조 달러로 평가

- 연간 해양총생산(GMP)는 최소 2.5조 달러로 세계 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의 약 5%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가 GDP순으로는 세계 8위 수준

* WWF는 OECD에서 채택한 통계적 접근보다는 갯벌 및 해양의 탄소 흡수 가치 등 자원 및 해양기능별 비시장적 가치를 해양경제 규모에 포함



주: 해양 자산가치는 2010년 기준, 국가별 GDP는 2021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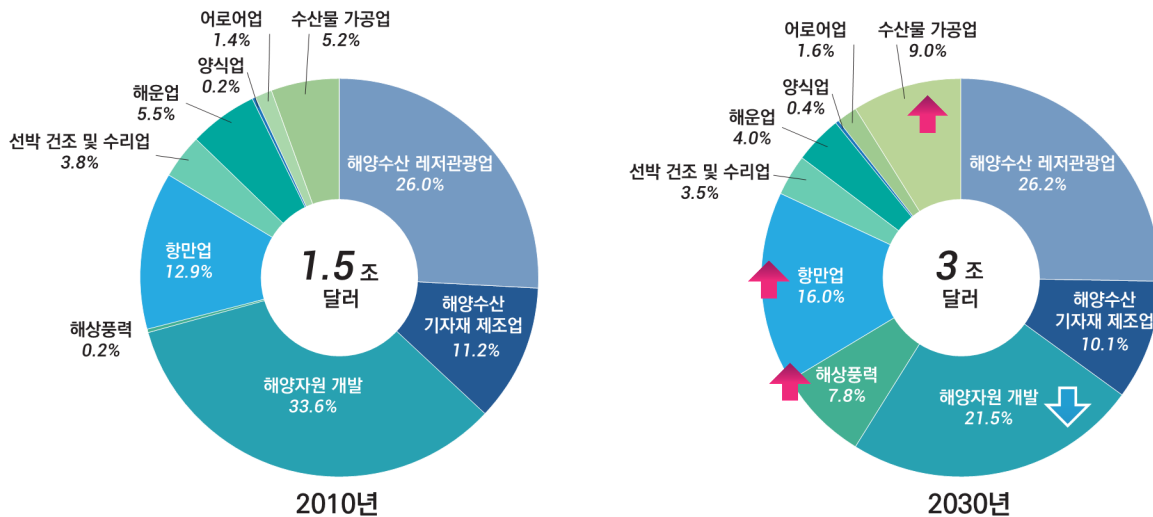
자료: WWF, 2015, Reviving ocean economy(해양 GDP), IMF(WEO, 2021 April GDP 순위)

• OECD 해양경제 추정

- '2030 해양경제 보고서'는 미래 해양경제의 성장 및 고용 창출을 전망하고 에너지, 환경, 기후변화, 식량안보, 과학·기술·혁신, 규제 협력 등의 분야와 해양산업과의 관계를 분석

- 글로벌 해양경제 규모는 2010년 기준 1.5조 달러로 전 세계 부가가치의 2.5%를 차지

- 2030년에는 2010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약 3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



주요국 해양경제 규모 및 해양정책



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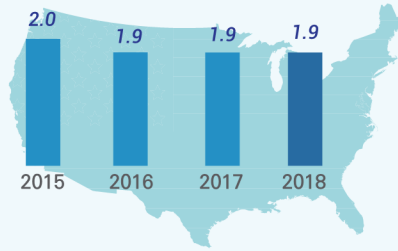
미국 해양경제 (2018)

3,728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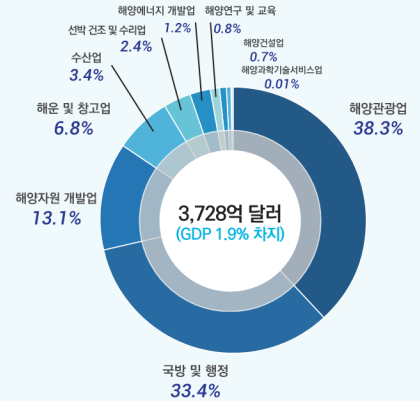
(약 421조 원)

주: USD 1\$ = 1,131원

전 산업 대비 해양경제 비중



미국 해양경제 분야별 비중



- 2018년 미국의 해양경제 총 부가가치는 3,728억 달러로 전 산업 부가가치의 1.9% 수준
- 분야별로는 해양관광업이 전체의 38.3%(1,428억 달러)를 차지하며 미국 해양경제에 가장 큰 기여

자료: NOEP, State of the U.S. Ocean and Coastal Economies

미국 해양수산 정책 동향

• NOAA 2021-2025 블루 경제 전략 계획(Blue Economy Strategic Plan)

- 해양 운송, 해양 탐사, 수산물 경쟁력, 관광 및 레크레이션, 해안 복원력 등 5가지 부문에 초점(글로벌 해양 경제를 향상시키는 새로운 로드맵 제시)

• 바이든 행정부 정책

- 2022년 회계 연도 국립해양대기청(NOAA) 예산을 69억 달러로 늘릴 것을 제안
- 파리기후협정(Paris Agreement)에 공식 복귀, 탄소 배출 감축 약속



중국

중국 해양경제 (2020)

8조 10억 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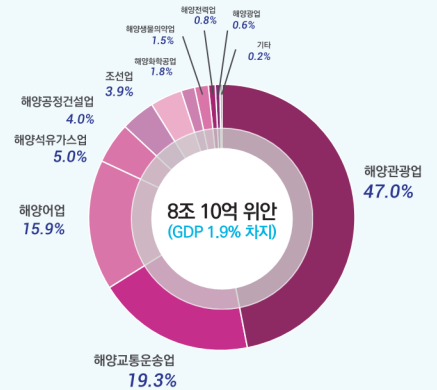
(약 1,395조 원)

주: CNY 1 ¥ = 174.3원

전 산업 대비 해양경제 비중



중국 해양경제 분야별 비중



- 2020년 중국의 해양경제 총 부가가치는 8조 10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5.3% 감소
- 분야별로는 해양관광업이 전체의 47.0%(1조 3,924억 위안)를 차지하며 중국 해양경제에 가장 큰 기여

자료: 자연자원부 해양전략계획·경제사

중국 해양수산 정책 동향

• 중국 14차 5개년 계획(2021~2025)

- 13차 5개년 계획에 이어 국가 경제 사회 발전을 도모
- (해양분야) 지속가능한 해양생태계 환경 구축, 글로벌 해양거버넌스 참여, 기후 변화 적극 대응, 녹색발전 체계 구축
- (수산분야) 콜드체인 물류시설 건설, 스마트 농수산업 발전
- (해양항만분야) 교통강국 건설, 디지털, 산업화 가속화 및 산업의 디지털화 전환 추진, 글로벌 해양중심도시 건설

• '6안(六穩) 6보(六保)' 방침 제시

- 중국 정부는 2018년 7월 중앙경제공작회의를 통해 '6안(六穩)'의 방침을 제시하고 뒤이어 2020년 4월에 '6보(六保)'를 제시하여 안정적인 중국 경제발전을 도모
- '6안 6보'의 방침을 해양 경제에 적용시킴으로써 안정적인 경제발전을 추진

* 6안(六穩)은 "안정적인 고용, 금융, 대외무역, 외자, 투자, 전방"을 의미하며, 6보(六保)은 "주민의 취업, 기본 민생, 시장 주체, 식량 에너지 안보, 산업 공급사슬의 안정성 및 허브조직 운영의 보장을 의미"



E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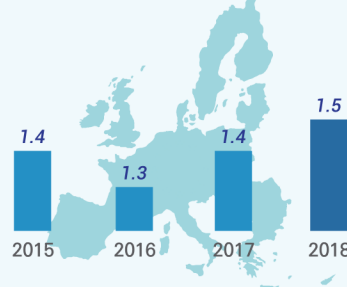
EU 해양경제 (2018)

1,761억 유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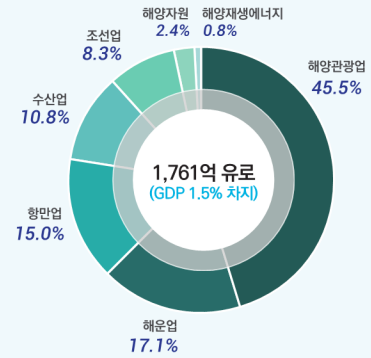
(약 236조 원)

주: EUR 1€ = 1,340원

전 산업 대비 해양경제 비중



EU 해양경제 분야별 비중



- 2018년 EU의 해양경제 총 부가가치는 1,761억 유로로, 전 산업 부가가치의 1.5% 수준

- 부가가치 규모가 가장 큰 부문은 해양관광업으로 800억 유로이며, 그 다음으로 해운업(300억 유로), 항만업(265억 유로), 수산업(191억 유로) 순

자료: The EU Blue Economy Report 2021

EU 해양수산 정책 동향

• '청색 성장'에서 '지속가능한 청색 경제'로의 전환

- 책임 있고 지속가능한 해양 경제를 개발

• 지속가능한 블루 이코노미

- 지역 생태 프로젝트를 위한 실행 계획 마련

- 에너지 생산, 해상 운송 및 항만 부문의 탈탄소화 및 정화, 해양 지역의 플라스틱 폐기물, 생물 다양성 보존 및 보호 등

• 해양전략체계지침(Marine Strategy Framework Directive)

- GES(Good Environmental Status) 달성을 위한 환경 목표 프로그램 및 관련 지표 수립

-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고, 남획, 해저 훼손, 해양쓰레기, 해양환경 오염 대처

- EU 회원국들에게 권고안을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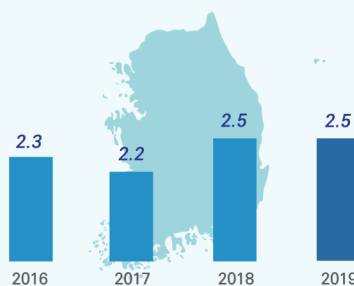


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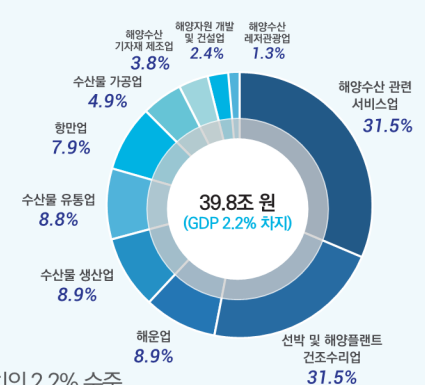
우리나라 해양경제 (2017)

39.8조 원

전 산업 대비 해양경제 비중



우리나라 해양경제 분야별 비중



- 2017년 우리나라의 해양수산업 총 부가가치는 39.8조 원으로 전체 33개 산업 중 17위에 해당하며, 전 산업 부가가치의 2.2% 수준

- 부가가치 규모가 가장 큰 부문은 해양수산물 관련 서비스업으로 12.5조 원이며, 이는 해양수산업 부가가치의 31.5% 차지

주: 2016~2017년은 실적치, 2018~2019년은 추정치

자료: KMI, 2020 해양수산업 분석 보고서(2016~2017년 산업연관표 기준)

우리나라 해양수산 정책

• 제3차 해양수산물발전 기본계획(2021~2030년)

- 해양수산물 분야에 관한 국가종합계획이자 「해양수산물발전기본법」에 근거한 법정계획
- 전환의 시대, 생명의 바다 풍요로운 미래란 비전 아래 해양수산물 안전 강화, 해양수산물 디지털 전환, 친환경 해양수산물 실현 등 6개 중장기 전략 제시

• 수산혁신 2030 계획

- 연근해어업 TAC 기반 자원관리형 어업구조 정착, 친환경·고부가가치 스마트양식 체계 구축, 어촌뉴딜 300사업 등을 통한 어촌 재생 본격화, 수산기업 창업·투자 육성, 수산유통 혁신으로 소비자 신뢰 확보 등을 포함

• 국가물류기본계획(2021~2030)

- 글로벌 여건변화에 따른 새로운 물류정책 및 전략의 재구축, 글로벌 공급사슬 지원, 물류 네트워크 확충, 국가균형발전, 4차산업혁명 및 신기술 도입 확산에 대응한 물류산업 혁신 등
- 한반도 신경제 지도, 신남방·신북방 정책 실현을 위한 국제 물류체계 구축 전략 제시

• 해운재건 5개년 계획(2018~2022년)

- 해운재건을 통한 '공생적 산업생태계 구축'(안정적 화물확보, 저비용·고효율 선박확충, 경영안정 등)
- 코로나19에 따른 글로벌 경제 둔화 등 환경 변화를 반영,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보완(한국해양진흥공사 지원 강화, 컨테이너선사 경영혁신 지원, 해운산업 지원 인프라 구축 등)

• 제 4차 항만기본계획(2021~2030)

- 그간 추진된 항만정책의 성과 및 평가, 국내·외 해운항만 물류 여건 전망 및 물동량 예측
- 우리나라 중장기 항만정책방향 및 목표 설정, 항만별 육성방향, 기능 재배치 및 운영계획, 항만별 중장기 개발 규모 선정, 인프라 중장기 투자 규모 및 계획 포함